

# 여수시, 국제크루즈 입항 박차...1만5천 관광객 온다

내년 8척 이상 입항 예고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노르웨이인 라인 등 첫선  
관광지 셔틀버스 등 지원

내년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여수 해외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제크루즈 8척 이상이 내년 여수항 입항을 확정,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해외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된 선박은 노르웨이인 크루즈 라인의 '노르웨이인 스카이호', 일본

MOL사의 '미즈이 오션 후지호', 코스타 크루즈의 '코스타 세레나호' 등으로 여수항에 처음 입항하는 크루즈가 주를 이룬다. 이같은 국제크루즈 입항은 국내외 포트세일즈(항만 홍보 활동)와 크루즈 관련 박람회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가장 많은 입항 항차다.

시는 단체관광에서 개별 자유 관광으로 변화하는 크루즈 기항 관광 추세에 맞춰 입항 환영 공연,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통역 인력 배치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항지 포트세일즈와 크루즈 관계

자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여수항을 홍보하고, 특색 있는 기항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크루즈터미널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크루즈터미널인 여수엑스포여객센터 미널은 국내 5대 기항지 중 유일하게 입항객 출입국 동선이 미분리된 터미널로, 입국과 출국 시간대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대합실 규모도 작은 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항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기항지로서 여러 국

제크루즈 선사로부터 선택받고 있다. 크루즈의 손조로운 입항을 위해 수용 태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에 여수를 알리고, 고부가가치 기항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항은 크루즈 시장 잠재력 지수가 제주항에 이어 가장 높았다. 향후 3년 내 한국 재방문 의향 80.5%, 크루즈 목적지로 추천 의향 82.9% 등 국내 5대 기항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항지로서의 잠재력을 확인받은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 314회 임시회 개최 의안 심의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소속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예산안 및 기금 4건, 조례안 및 규칙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금 출연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3% 증액된 453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9억원 증가한 4440억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한 92억원이다.

구례군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47% 감액된 346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억원 감소한 3408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 증가한 55억원이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은 "올해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14회 임시회 폐회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 여수시, '윤행속열사로' 지정 공적비 등 명에도로명판 4곳 설치

여수시가 화양면 장무리에 소재한 윤행속 열사 공적비를 지나는 도로에 명에도로명 '윤행속열사로'를 부여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4월 '주재년열사길'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박영평 시의원의 제안을 시에서 수용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윤행속열사로' 명에도로명판은 용주교차로, 윤행속 열사 공적비 앞, 죽림교차로 등 총 4곳에 설치돼 있다.

명에도로명은 법정도로명과 다르게 실제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지역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따져 법정도로명과 병기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5년이며 기한 만료 30일 전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혈연 윤행속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윤행속열사로를 지날 때마다 숭고한 애국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2025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고흥군, 4개 지구·7개 마을 대상

고흥군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4개 지구 7개 마을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의 기준,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중 포두 오취3지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 각각 상오마을회관, 신오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포두 옥강1지구는 같은 날 오후 2시 우산마을회관에서, 동일봉영1지구도 같은 날 오후 3시 소영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풍양 풍남1지구는 11일 오전 10시, 10시 30분, 11시에 각각 서풍마을회관, 동풍마을회관, 남당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 13회의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2024년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성료

광양시는 농업 종사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한 총 13회의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농업기계 조작법이나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올바른 농업기계 사용법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 보호구 착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농업기계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도 실시됐다.

시는 시민들이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실습장을 제공, 농업인의 만

족도를 높였으며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잔가지 파쇄기 운전 실습과 예취기, 기계톱 정비 실습도 진행했다.

하진옥 기술보급과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번 실습을 통해 기본 실력과 자신감으로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고 이를 영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고흥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 선정

### 공공주도형 사업 본격 착수 "2030년 인구 10만 기폭제"

고흥군의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 발굴을 목표로 진행되며 한국전력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사업을 통해 예비 사업지구의 검증과 풍력 자원 계측을 진행하고 2G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3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에 고흥군은 우선적으로 △지역산업연계 개발계획 수립 △수산업-해상풍력 공존 연구 △전력계통 확보 방안 △발전단지 내 규제 검토 등을 추진하고 적합입지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3월 군민 에너지 연금 계획을 수립한 후 7개월 동안 42회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한 바 있다.

또 고흥군은 오는 2032년까지 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민간 사업지구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전환 △개발 이익공유를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모델 개발 △해상풍력 입지 개발을 위한 해상 교통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1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민간 발전사 중심의 사업 추진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앵커기업의 육성과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해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다 시군과도 협력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실버대학 수료식 성료 K-water 주암댐지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순천, 보성, 화순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암댐 실버대학이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랑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3일 개최된 수료식에는 그동안 주암댐 실버대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소중한 경험을 되돌아봤다.

수료자들은 지난 1년간 이어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소감문 발표와 우수 참여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양모(보성군 북내면)씨는 이날 발표한 소감문을 통해 "주암댐 실버대학 덕분에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오병동 주암댐지사는 "앞으로도 주암댐 실버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